

기독교 역사관

홍 치 모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역사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사관에 관한 논의나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역사이론이나 사관에 관한 연구서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외국학자들이 쓴 저서들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역사학도를 비롯한 일반 독자에게까지 보급되어 읽혀지고 있다. 더구나 1987년 6월 29일 자유화 선언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출판자들은 막스와 엥겔스의 사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서술한 각종 유물사관에 관한 서적들을 출판하여 젊은 지식층에 파고들어가 그들을 유혹하며 현혹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지적 혼란상태 속에서 우리 기독교 지성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재검점하는 일의 하나로 우리 나름대로 종교 개혁자들이 수립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바탕위에 서서 기독교 역사관의 정립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바람직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1. 사관이란 무엇인가?

1) 역사개념의 이중성

사관이란 무엇이라고 묻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질문이다. 역사에 관한 질문에 대답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바로 사관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즉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역사를 해석하고 이해하며, 그 속에서 그 나름대로 의미를 발견하려는 순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역사라는 말에는 두가지 뜻이 포함되어있다. 첫째로 영어의 History 라는 말은 <과거의 사실>을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사라는 말에는 과거의 사실이나 사건등이 기록으로 보존되

어 내려오고 있는 것이 내포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록으로서의 역사>(History as a written record)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역사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내려 오고 있는 기록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말한다.

둘째, 역사라는 말에는 독일어의 Geschichte 라는 말의 개념도 동시에 내포되고 있다. 이 말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의미한다. 이것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민족의 문화적, 교육적 전승을 통해 한 개인이나 민족 전체의 기억 속에 살아남아 계속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암시하고 자극시키는, 말하자면 <살아서 계속 숨쉬고 있는 역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매우 다이나믹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목격하고 기술한 사람이나 또는 체험을 통해 구전으로 전한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그것이 올바르게 전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입장에 따라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2) 역사에 있어서 객관과 주관

역사에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라든가 사건들 자체는 의심할 여지없이 객관적 실재이기는 하지만 우리 자신의 주관적 체험과 분리시켜서 그 사실들을 만날 수 없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흔히 주관이라고 부른다. 가령 예를들면 이렇다. 우리 기독교신자들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모든 사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으로 보는 반면 비기독교인들은 불가지론을 주장하거나 그

형지 않으면 우연(chance)의 소산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막스주의자들은 <태초에 물질이 있었으나>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사이에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양자간의 견해 차이를 거의 나타내지 않을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을 막론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viewpoint)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역사인식에 있어서 필요한 사료를 참고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하다. 그리고 사료를 조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자는 또한 가장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조지 말스덴(George M. Marsden)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 역사가의 기독교적 가치체계는 그가 기술하기 위하여 선택한 사실(사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말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적 신앙전승에 충실하기 위하여는 역사 그 자체까지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역사가들은 모두 자기 나름의 관점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편향적인 왜곡은 선택의 과정에서 불가피하다. 그러나 선입관을 가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역사가는 부단히 초연한 자세로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증거를 신중히 검토하고 그것이 자기의 선입관이나 편견에 꼭 들어맞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사건을 공정하게 기술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러한 경향을 극복하여야 한다."²¹

말스덴 교수의 말을 엄두에 두고 역사서술과 해석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을 들어 적용시킬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19세기 중엽까지 영국인들과 미국인들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 노예를 생포하여 그들을 매매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인도적인 입장에서나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비도덕적이라고 판단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노예매매와 그 제도에 반대하는 운동에 앞장섰다. 반면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도 기독교 역사가들은 아울러 지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가들은 역사를 서술하기 전에 사료를 수집할 때 공정성과 전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역사가로서 지녀야 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작업이 끝난 후에 비로소 해석을 가해야 한다.

2. 기독교 사관의 전제

1) 주권자로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철학적 사고가 그러하듯이 인간의 사고 밑바닥에는 사고의 주체자로 하여금 사고를 가능케하는 파라다임(paradime)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사고의 전제(presupposition)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²² 하나님은 인격자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않고 인간의 역사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섭리자이다. 현재 하나님은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생사화복과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제도 마찬가지로 섭리하시며 다스리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있고 의미있는 체험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데 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서 진행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가를 인식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 역사의 변천과정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오묘막칙한 섭리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없다. 다만 기독교 역사가는 역사속에서 발생하고 전개되었던 사건이라든가 인물들의 활동과 사실들에 관해서 해석을 가할 때 기록된 계시로서의 성경을 우리의 유일한 전거와 가치판단이나 도덕적 판단의 기준과 척도로 삼을 뿐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전개된 구속사를 기록한 것임으로 성경역사 이외의 역사기록에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으므로 기독교 역사가들은 성경에 명시된 원리를 가지고 일반역사에 나타난 사건들과 사실들을 조심조심 분석하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하여 밀러(Charles J. Miller)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구약사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모형을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시대에 적용시키려는 시도는 두 시대의 성격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는 영적인 축복들만 아니라 직접적인 물질적 축복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로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고난을 받아야 한다."²³

신약시대에 전개되는 인류의 역사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가는 역사를 연구하고 서술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가 상호간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선악간의 문제를 상호 연관시켜서 논할 때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우리의 역사인

식을 출발시켜야 한다.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심판하시지만 그 시기와 진행과정은 아무도 알 수 없다.

2) 인간의 양면성

다음 둘째로 기독교 역사가가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전제는 인간에 대한 정당한 견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의 형상(Imago Dei)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한다. 여기에서 형상이라는 말은 인격의 모습을 의미하거나 좀더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때 자신의 인격의 속성의 일부를 인간의 인격에 포함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곧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 이성, 감정, 의지, 언어 등을 구사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러므로 땅위에 있는 어느 피조물 보다는 뛰어난 존재이다. 인간은 이와같은 기능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설정하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과실을 따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의 죄를 짓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은 교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자신을 속이는 기만자가 되어 언제나 자신을 필요 이상 높이려는 유혹에 사로잡힌다. 그리하여 인간은 위대한 문화업적을 이룩할 수 있다는 자만심 때문에 자기 이외의 어떠한 존재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기자신을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자기에게 적절한 자기 경외감을 일으켜 주는 문화적 업적 때문에 인간 자만에 빠지고 만다. 성경이 제일무게게 지적하는 죄가 바로 이 <교만> 죄이다.

인간의 영적 타락은 인간성을 전적으로 부패시켰다. 그러므로 인간은 역설적 성격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인간은 스스로 문화를 창조하고 자연계를 어느정도 유효적절하게 조절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을 자율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인간의 자만과 이기심은 너무나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들을 받기가 어렵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종교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 역사가라면 인간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가져야 한다. 즉 인간은 우주의 왕인 동시에 만물보다 못한 가증스럽고 찌꺼기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간의 문화적 업적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인간관이 바로 역사가가 가져야 할 전제이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자기자신을 절대화시키는 방법으로써 역사상 어떠한 수단을 써왔는가를 한두 가지만 예를들어 설명하기로 하자. 인

간은 역사적으로 인간의 권위가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새롭고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들을 발견하였다. 그것이 곧 이데올로기(ideology)인 것이다. 이데올로기란 각 시대의 정신적 내지 정치적 지배층에 속해있는 엘리트들이 고안해낸 지도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엘리트들은 그들이 살고있는 사회에 있어서 경제구조에다 결부시켜서 자연 혹은 사회를 이해할 때 형성되는 사회적인 의식형태가 이데올로기로 형성되는 것이다.

17,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에 살고있던 사람들의 의식속에는 인간이 곧 하나님이고 이성과 과학이 곧 그의 계시이며 율법의 근원이 인간에게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하였다. 그것은 바로 그 시대에 살고있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종교의 역할을 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민족주의와 국민주의가 국민들의 궁극적인 충성심을 민족과 국가에 바치도록 요구하여 왔다. 그리하여 종교의식처럼 국가의식, 국가의 봉창, 국가에 대한 경례 등이 생겨났다. 이것을 가리켜 국민의례라고 한다. 심지어 국가도 국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미래생활의 희망을 약속해 주는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 사상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공산주의는 농민과 노동자들의 낙원을 건설한다는 청사진을 걸고 순진하고 무계한 대중들을 항상 유혹하고 있다.

이와같은 이데올로기는 분명히 명시적으로 나타난 것들이지만 비명시적으로 나타내면서 인간과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도 있다. 과학적 발견, 기술의 진보, 철학 사상, 기타 지성적인 여러 업적들에 대한 신념은 종종 인위적인 여러가지 형태의 종교로 탈바꿈하여 인간의 정신을 지배해왔다.⁶⁾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가들이 역사와 문화적 제가치를 연구하는 것은 그 가치들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반기독교적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어느 한 문화권에 깊이 내재하고 있는 문화적 여러 모형, 이념, 가치, 가정들은 그 문화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지불식간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영향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에 의하여 지배를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들을 다각도로 인식하고 나면 그들의 허구성을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되며 어느 정도 통제와 조절이 가능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각 시대마다 사람들은 통속적인 신화의 형태로 인간 스스로의 이데올로기를 노출시켜 왔는데 그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타락한 자기 기만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가들은 성경적 인간관을 전제로 하고 이와같은 그릇된 이데올로기를 분

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기독교 역사가가 실천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자.

3) 기독교 역사가의 임무와 역할

기독교 역사가가건 아니건 간에 일반적으로 역사가라면 역사적 행위를 가능케한 동기를 알려고 한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더구나 인간의 행위에는 여러가지 동기가 있다. 가령 예를들면 다름과 같다.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념, 계급투쟁, 경제적 이해관계, 사회적 여러 압력들, 무의식적인 심리적 요인등 어느 하나에 의해서 행동하게 마련인데 역사가는 역사의 무대 위에서 연출한 인간행위의 동기를 그의 본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역사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역사의 원인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설정하는 작업가설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가는 어떤 인물과 사건을 연결시켜서 고찰할 때 그 인물이 살고있던 시대의 성격, 교육적 배경, 심리적 배경, 이상 등도 아울러 참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들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속에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은 확실히 믿지만 그 방법과 진행과정은 모른다. 다만 기독교 역사가들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역사적 사건의 요인을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러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인간관은 어떠한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간은 매우 복잡한 존재로 나타난다. 인간 행위의 동기의 요인을 볼 것 같으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성, 탐욕, 권세욕, 명예욕, 지위욕, 허영, 민족주의, 계급투쟁, 신앙, 소망, 이상의 추구 등등이 행위의 유발요인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기독교 역사가들은 그 중 하나만을 항존적 주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면에 막스주의 역사가들은 이 가운데서 <계급투쟁>만이 역사를 움직이고 변혁시킨 유일한 요인이라고 고집한다. 이렇게 할 때 역사는 왜곡되고 도식적 해석으로 끝나게 된다. 요컨대 기독교 역사가가 해야 할 임무와 역할중의 하나는 역사 연구에 앞서 인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앞서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그 결론은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역사의 어두운 면을 더 많이 지배해왔다는 것과 아무리 인간의 자연적인 동기가 좋았거나 또는 순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나 한결같이 반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떠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가는 낙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다.

4) 기독교 역사가의 판단의 문제

역사는 해석이라는 말을 흔히 하고 있다. 그 해석은 해석을 하는 당사자의 주관에서 나온다. 그런데 모든 역사적 사건속에는 인간이 개입되어 있으며 인간들의 행위가 숨어있다. 역사가는 사건의 숲을 파헤치면서 그 속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아니, 그들의 행위를 고찰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역사가들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도덕적 판단이나 가치판단이 달라지게 된다. 인간은 종교를 가지고 있건 없건간에 도덕적 존재임을 면할 길이 없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역사가는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써 자료를 수집하고 선택할 때 부터 이미 가치판단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역사해석의 영역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도덕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더군다나 기독교 역사가들은 기독교적 도덕과 가치기준을 규범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문화를 찬양하거나 또는 어떤 주의(-ism)나 사상을 주장할 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역사가들은 역사적으로 존재했거나 존재하고 있는 어떤 이념들에 동의하며 어떤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가를 성경의 계시와 기독교의 신앙윤리에 입각하여 비판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들이 최후의 도덕적 판단자이거나 심판자들일 수는 없다. 다만 명확하게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석적 비판은 가할 수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판단능력은 한 역사가가 총체적으로 체험한 지식의 수준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여하튼 역사적 여러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다만 우리 기독교 역사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가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분석적 의미의 도덕판단과 비판적 의미의 도덕판단은 신중히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비판적 의미의 도덕판단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동정이나 이해가 결핍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적 과오를 범하기 쉽다. 기독교인의 도덕판단은 너무나 비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기독교인의 도덕정신은 비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가라고 할 것 같으면 비판적 도덕판단 보다는 분석적 도덕판단이나 가치판단이 훨씬 더 건설적이고 창조적이다. 기독교 역사가는 인간의 허식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해학과 풍자와 비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아량과 이해가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들 자신속에 있는 허식도 알아 비웃을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이런 정신을 소유하게 될 때 비로소 건전하고 진실된 역사연구와 서술이 가능하게 된다.

3. 기독교 역사서술의 제문제

1) 기독교 역사서술의 의미

기독교적 역사서술이라는 말은 일반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독교적이라는 말은 역사서술의 밑바닥에 은연중 기독교 신앙이 확고하게 하나의 전체적 관념으로서 깔려있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역사서술의 특성을 규정짓는 동질적이면서 다양한 가설, 가치, 이해 그리고 통찰을 가리킨다.⁸⁾ 그리고 기독교적 역사서술은 세속적인 역사서술과 상호 교류한다.

그러나 비판적으로 선별하여 수납한다. 그러므로 세속적 역사서술보다는 선험적(a priori) 위치에 있다. 다시말할 것 같으면 "기독교적 역사서술이라는 말은 단순히 기독교인이 서술한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인간관, 사회관, 규범관, 역사관, 그리고 피조실체 전반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이 제공하는 여러가지 유형의 가치와 통찰에 의거하여 인간, 사회구조, 제도, 사상, 관습, 생활양태의 역사를 평가하고 있는 역사서술을 가리킨다."⁹⁾ 그러므로 기독교적 역사서술이란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인간의 상태와 역사적 실체를 참되고 통찰력 있게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기독교 역사가는 역사서술을 통해서 근본적인 것에 대한 자기인식적 반성을 포함시킨다. 이와 같은 자기인식적 반성을 통해서 보다 훌륭하게 기독교 역사가로서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2) 근세 이전의 역사서술

우리가 서양 고대사를 살펴볼 것 같으면 기독교가 발생하던 당시 기독교는 헬레니즘(Hellenism) 세계와 조우(encounter)하여 대결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당시의 기독교사들과 기독교학자들(변증가와 신학자들)은 헬레니즘 영향하에서 학문적 긴장의 고비를 조금도 늦출 수 없었다. R.G.Collingwood는 이와같은 지적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경멸과 적대감을 가지고 이방학문과 문학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제롬(Jerome), 암브로스(Am-

brose) 그리고 어거스틴(Augustine)과같은 교부들을 연구하여 보면 이러한 경멸의식은 교육의 부족이나 이교적 지식에 대한 야만적인 무관심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사상의 전체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이상적 지식 추구를 지향하고자 하는 열정때문이었다."¹⁰⁾

이리하여 회랍, 로마시대의 고전적, 이교적 순환사관을 비판함으로써 역사는 직선적 방향성을 띠고 진행되어가는 과정임을 확실하게 재시하였다. 이와같은 기독교 사상이 서구문명의 전체적 구조속으로 들어왔다. 연이어 서양 중세를 거쳐 16, 17세기의 종교개혁 시대와 청교도혁명의 시대를 거쳐 기독교 역사서술은 보편적인 역사의 가설체계를 세우고 다듬는 일에 기여하였다.

성경적인 초기기독교 역사서술의 가장 중요한 공헌 가운데 하나는 인간을 역사의 동인으로 이해하였다는 것이다. 회랍과 로마시대의 역사서에 있어서도 역사의 주체적 인자가 그저 막연한 판단의 행위라기 보다는 인간의 행위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회랍과 로마시대의 역사가들은 역사적으로 인간의 위치를 단순히 합리적 의지에 기초하여 행동할 수 있는 합리적 존재라는 범위 안에 한정시켰다. 이와같은 인간관은 <영원한 실재>라는 관념과 <지상의 사건은 덧없이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관념에 연결되어 역사상의 인간을 운명적 존재로 혹은 그 역할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¹¹⁾

이것에 반해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에 관계했던 사람들의 존재성을 볼 것 같으면 인간을 단순한 합리적 존재 이상의 훨씬 복잡하고 완전한 존재로 묘사하였으며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전피조세계를 지으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유대적, 기독교적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피조계의 중심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와 인간사회를 감독하고 드러내는 중요하고 또한 일상적인 과업을 맡고 있는 문화창조자로서 이해하였다.

둘째로 성경적, 기독교적 역사서술의 유산은 다양하고 복잡한 전실재의 세계가 모두 하나의 통일적인 전체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 전체성속에 내포된 모든것과 모든 사건은 의미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곧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고찰하고 해석할때 비로소 역사의 참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로마서11장 36절)

3) 근세 이후의 역사서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쳐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적 역사서술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소위 역사연구에 있어서 과학적 방법도

입되기 전까지 역사서술은 철학, 신학, 문학, 법학, 도덕, 민속등을 포함시킨 종합적인 서술이었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역사연구는 점차 그의 특수하고 독특한 독립된 영역을 가지게 되었다. 즉 과거의 기록과 문서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연구가 역사연구의 중요한 대상이요 임무가 되었다.

그러나 서구사회와 과학적 연구의 세속화로 인하여 역사연구의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던 기독교적 가정들은 세속적인 것들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말틴 마티(Martin Marty)가 지적한 것과 같이 18세기까지 서구문화를 지배해온 문화유형들과 기독교와의 분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¹²⁾

이 결과 서구역사학계를 지배해왔던 역사연구방법은 실증주의적 역사연구와 마르크스(Marx)와 엥겔스(Friedrich Engels)의 유물론적 계급투쟁의 역사연구로 나타나게 되었다. 기독교적 역사서술과 일반적 역사서술의 양극화 속에서 소위 실증주의적 역사연구를 표방했던 역사가들은 더욱더 그들의 연구영역을 넓히고 발언을 강화시키면서 과학적 중립주의와 형이상학적 전제의 불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리하여 기독교 역사가들은 그들 자신이 교회사 연구에 헌신함으로써 많은 훌륭한 업적을 남게 되었다. 교회사에 대한 집중적 연구는 일반 세속적 역사가들로 하여금 기독교적 역사서술은 교회사를 의미한다는 편협한 인식을 갖게 하였다.¹³⁾

그러나 기독교적 역사서술이란 결코 한정된 영역 안에 있어서의 연구, 즉 교회사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역사가가 시도해야 할 연구는 어떻게 일반 세속사를 기독교적 신앙과 안목에서 의미있게 해석하고 서술 하느냐에 있다.

20세기에 들어서자 그리스도를 믿는 탁월한 역사가들 가운데 교회사를 전공했거나 역사 신학자가 아닌 일반 역사가들 중에서 일반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기독교적 통찰력을 보여준 현역 역사가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특히 영어를 구사하는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4명을 선택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콜럼비아 대학에서 역사학을 강의했던 헤이스(Carlton H. Hayes) 교수는 19세기 국민주의 운동사의 권위자였다. 그는 로마 카톨릭교회에 속한 신자로서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신앙을 신봉했던 사람이었다. 헤이스 교수는 19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민족주의(nationalism) 사상 안에 종교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세속시대에서 종교의 대역을 맡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서구사회를 역사적으로 고찰할 때 각 시대마다 지배적 이념(ideology)이 출현하여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했다는 것을 제창하였다. 즉 인류의 거의 모든 시

대가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화속에는 다양성과 통합성이 동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와같은 역사 해석은 기독교적 역사이해 내지 해석에 있어서 진일보의 면을 보여 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¹⁴⁾

다음은 영국 로마카톨릭 교회가 낳은 문화사가 크리스토퍼 도슨(Christopher Dawson)이다. 그는 1919년 세계 제1차대전 직후 영국 국교도(Anglican)에서 로마카톨릭교도로 개종한 사람이다. 이무렵 유명한 시인 T.S.Eliot도 로마카톨릭으로 개종하였다. 도슨 교수는 1932년 <서구의 형성>(The Making of Europe)을 간행함으로써 문화사가로서의 그의 위치를 확고히 다졌고 점차 세계의 역사학계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는 토인비 교수와 쌍벽을 이루는 문화사가이기는 하지만 토인비가 세계문명의 흥망성쇠를 역사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도슨 교수는 유럽사회를 그의 연구대상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도슨 교수는 유럽을 하나의 통일된 정신적 공동체 (spiritual community)로 전체를 삼고 유럽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내리는 데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다. 특히 1950년에 간행한 <서구의 이해>(Understanding of Europe)에서는 이 정신적 공동체가 종교개혁 이후 세속화의 길을 걸으면서 점점 해체되고 붕괴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예리하게 분석한 것은 큰 업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¹⁵⁾

세째로 영국의 경제사 분야의 석학 R.H.Tawney의 공헌이다. 그는 영국 교회의 신자로서 경제사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당시 막스주의자들이 인간생활의 경제적 영역을 절대시한 것과는 달리 그 영역을 상대화시킴으로써 경제적 발전과정에 기독교적 동인과 기타 세속적인 종교형태를 띤 요인들이 경제발전에 크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저서 <종교와 자본주의의발생>은 막스 웨버(Marx Weber)의 이론을 보완하면서 경제구조에 미치는 세계관의 영향과 경제사의 변화에 대한 균형있는 해석을 보여 주었다.¹⁶⁾

끝으로 기독교 신앙의 안목에서 일반사를 해석하고 서술하는데 공헌이 컸던 사람은 케임브릿지 대학의 버터필드(Herbert Butterfield)교수이다. 세계 제2차대전이 끝나자 그는 <기독교와 역사>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도함으로써 그의 연구 생활의 하나의 전환점을 찍게 되었다. 버터필드 교수는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고귀성과 죄악성을 동시에 인식시킴으로써 그때까지 팽배하고 있던 도덕적 발전사관을 깨뜨리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¹⁷⁾

맺는말

세속화가 가속화 되어감에 따라 역사서술과 해석도 세속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세계 제2차대전 이후 미국의 각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던 젊은 소장 역사학자들과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이 협력하여 <신앙과 역사학회>를 창설하였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역사학자들의 자발적인 자기인식(self-consciousness)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오늘날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설과 가치는 비기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기독교적인 안목으로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역사가들이 주의깊은 철학적 역사적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기독교 역사가들이 실천해야 할 당면과제는 역사서술과 해석에 있어서 인간의 본질, 역사의 과정, 인간들의 문화행위, 역사 안에서의 죄악과 구속의 상호작용, 정의의 의미, 사회질서의 본질, 사람의 의미, 청지기 개념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의미있게 적용시키느냐에 있다.

이와같은 작업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이다.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착실하게 한 발자국씩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주

- 1) George Marsden/ Frank Roberts, ed., A Christian View of History?,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1975, p. 35
상기 저서는 필자에 의해서 <기독교와 역사 이해>라는 제목으로 1978년 충신대학 출판부에서 간행하였다. 이하 이 책의 인용은 우리말 번역판을 사용하기로 한다.
홍치모 역, 기독교와 역사 이해, 충신대학 출판부, 1978, p. 49
- 2) 홍치모 역, 기독교와 역사 이해, 충신대학 출판부, 1978, p. 51
- 3) Westminster 신학교의 변증학 교수였던 고 Van Til 교수의 기독교의 변증학에서 누누히 강조하고 있는 기독교 철학의 기본이론이다. 소위 presupposition theory 라고 한다.
감언 1장 7절, 3장 6절.
- 4) Charles J. Miller, "As there Christian approach to History?" Fides et Historia, II, I, Fall, 1968, pp. 6-7
- 5) 홍치모 역 op. cit., p. 58
- 6) " Ibid, p. 61
- 7) " Ibid, p. 62
- 8) " Ibid, p. 73
- 9) " Ibid, p. 73
- 10) " Ibid, p. 74
R. G. Collingwood, The Idea of History, New York, 1956, p. 51
- 11) 홍치모 역 Ibid, p. 79
- 12) Martin Marty, The Modern Schism, New York, 1969를 참조
- 13) 홍치모 역 op. cit., p. 84
- 14) Hans A. Schmitt ed., Carter Jefferson, "Carlton J. H. Hayes," in History of Modern Europe, Baton Rouge, 1971, pp. 15-35
- 15) Dawson 의 사관에 관해서는 The Dynamics of World History, New York, 1962를 참조하라. 이 책은 삼성문고에서 <역사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의 민석홍, 나종일 두 교수가 번역하였다.
- 16) D. W. Bebbington, "R. H. Tawney as a Historian", Christian Graduate, 1972년 6월호, pp. 52-56
- 17) Herbert Butterfield, Christianity and History, 1949 주개영 역, 기독교와 역사, 기독교 출판사, 1984

*질의응답: (본 토의사항은 1988.8.28(금)-29(토), 양일간 서울 C.C.C부암동 수련원에서 열렸던 제3회 하계 연합강좌시 이루어졌던 것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문:

기독교 역사가들은 역사를 도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배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막연히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식화하는 것이며, 문제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식이 가능하면 많은 변수를 포함하여 현상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도식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지 도식 그 자체를 배격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또한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번 하셨는데 과학적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도식적이라는 말로 흔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의에서 도식이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 도에 베이트가 이데올로기를 하나의 것으로 모든것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 것과 같이, 하나의 변수만을 가지고 모든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독단적인 도식을 배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오해의 여지가 있어 질문합니다.

답:

여기서 말한 "도식"이라는 말은 후자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즉 어느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서 독단적으로 전부를 일관성있게 해석해 버리려고 하는 것을 기독교 역사가들은 배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다 연구하고 난 뒤에 내리는 최종적인 결론은 어차피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도덕적 내지 윤리적인 평가인데, 이때 신중하게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중하게 한다는 것은 사건을 분석적으로 보아야 하며, 그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지만, 그의 경제정책은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야 할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치모 교수)



홍치모 교수는 현재 총신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 문리대 사학과와 영국 그라스코 성서신학대학을 졸업하였다. 한국교회사학회 한국서양사학회의 총무를 역임하였으며 미국 종교개혁사학회, 신앙과 역사학회 및 스코트랜드 장로교회사학회의 회원이다. 저서로는 <종교개혁사>, <영국의 종교와 정치>가 있으며, 번역서로 <기독교와 역사 이해> 및 <스코트랜드 종교개혁사>가 있다.

애국적 민족교회를 지향한 한국 초기교회에 관한 연구

김 광 수

1. 정치의식 각성을 위한 교회동태

1) 민족개화 수요에 응답한 기독교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자세로 선교사를 맞이하여 한국토양에 심겨진 기독교는 처음부터 우리 민족사와 함께 전진을 계속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기독교가 도입된 당시의 국가정세는 한말의 비운이 감돌고 있는 대시련기였고 또한 서구화의 물결이 강하게 넘실거리던 개화를 향한 시기였다.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선교는 국내의 보수파 세력과 판권을 뺏으면서 전개하였다는데 흥미가 있다. 1883년 6월 보수파의 수령 민영익이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가우처(John F. Goucher) 박사를 만나 그에게 한국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어준 것이 한국선교의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갑신정변 때 치명상을 입은 민영익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도래한 미국 북장로회 파송의 알렌(H. G. Allen) 의사가 치료하여 선교사가 왕실로부터 신임을 얻는 계기가 되었음도 기이하기만 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한국 프로테스탄트로 하여금 보수세력과 친근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개화파의 거물인 김옥균을 통하여 일본주재 감리교 선교사인 맥클레이(R. S. MacLay) 목사가 고종을 만나 의료선교와 교육사업의 윤희를 받아낸 것은 매우 미묘하기만 하다. 하여튼 선교사들은 그 어떠한 틈바구니를 뚫고서라도 우리나라 은둔국에 들어와 선교사업을 전개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당시에 있어서 한국의 국가적 존립의식은 언더우드가 한 말을 인용한다면 고종은 서방각국의 부강이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종교의 혜택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선교사들을 향하여 기독교를 받아들여 개화를 촉진하고 국교로 하고 싶다고까지 말씀하셨다.¹⁾ 이상의 내용은 국왕께서도 기독교를 접수하여 국가의 개화

와 진흥을 의도하였다는 사정을 알게하고도 남는다.

지난날에는 기독교를 향하여 심한 박해를 가하여 피흘리게한 우리민족이 이제는 사회를 깨우치고 민족의 활로를 인도해 주는 필요한 종교로써 요청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리하여 선교사들은 점차 보수세력과 제후를 뒤로하고 개화사상을 불러일으키는데 앞장서게 되었다.

역사로 보아 교회와 국가는 서로 이질적인 것이라 하여 때로 구별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한국선교 초기의 기독교는 민족의 강력한 수요에 응답하여 공급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한국민족 개화에 충분한 공헌을 남겼던 것이다.

2) 영춘문 이어 사건과 선교사의 관련성

1895년 10월 8일 한밤중에 일본인 미우라 공사의 주도아래 획책된 민비살해 음모사건은 순사부장 아리바가 가담한 난인들에 의하여 각본대로 진행되었다. 난당들은 경복궁의 수비대원들을 물리친 후 궁내에 난입하여 민비를 찾아내어 칼로 머리의 오른쪽을 내리쳐 미처 절명하지 않은 몸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질러 태워 죽였다. 일본인들이 난행할 때 경비대 교관인 미국인 다이(Dye)와 러시아인 기술자 사바틴(Sabatine)이 목격한 것은 후일을 위한 부동의 증거가 되었다. 미우라 공사는 이 사건을 전혀 모른다고 부인하였으나 주한 외국공사들 중에 이 사건이 일본인의 소행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일본인의 이 유례없는 만행은 열국사이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사건의 확대를 염려한 일본 본국에서는 미우라 공사 이하 연류된 자들을 일단 소환하여 히로시마 감옥에 수용하고 재판에 회부하였다.²⁾

당시 미국 정부의 대리공사직을 맡고 있던 알렌은 일본의 만행을 공개하여 한국의 외무대신 김윤식에게 왕후 살해범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본국정부에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일본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언 하였다. 그러나 그때의 미국의 국제정치적 입장은 극동에 있어서 일본을 멀리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가 없었다. 러시아의 남진을 방어하기 위하여 미국은 일본을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결국 알렌은 본국 정부로부터 일본을 비난하는 발언을 제한당하였고 1904년 4월에는 공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을미사변에 왕비를 잃은 고종은 나날의 생활을 공포속에서 떨며 지내야 했다. 국왕은 알렌을 만나자 한없이 슬퍼하면서 시독될까 두렵다고 말하였고 "왕후의 죽음을 누가 갚아주기만 하면 머리카락을 잘라 신을 꼬아 주겠다."⁹⁾ 고 까지 애원하였다고 한다. 일본인의 독살을 두려워한 고종은 선교사들이 잠시도 옆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음식물로는 선교사들이 드리는 연유나 통조림 외에는 취하지 않으려 하였다.¹⁰⁾ 에비슨(Avison)의사는 국왕의 식사의 시독여부를 살펴드리기에 고심하였다. 국왕이 마음놓고 믿을 수 있는 존재란 선교사 외에 없었으며 고종은 계속하여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 제신 국왕을 평안히 모시려는 생각은 인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식일 것이다. 이와같은 소식을 들은 윤웅렬 장군은 몇사람의 동지들과 함께 11월 28일 경복궁의 동문인 영춘문으로부터 국왕을 이어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패하였다. 이 영춘문 이어사건은 뜻밖에 다른 초점으로 비화되었다. 국왕을 이어하는 모의에 미국 선교사들이 가담하였고 특히 미국의 대리공사 알렌이 조종하였다고 일본신문 한성신보가 대서특필하였기 때문이다. 서울 주재의 우체다

일본영사는 이 사건을 즉시로 일본의 외상대리사이온지에게 보고하면서 외국인 중에 언더우드와 에비슨과 헐버트(H.B.Hurbert) 그리고 다이가 관련되어 있다고 확인하였다. 민비시해사건으로 세계여론의 화살을 받아오던 일본으로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미국 선교사들이 국왕 유괴사건을 꾸렸다고 대대적으로 역선전을 폈다.

선교사들이 이 사건에 가담하였는지 안하였는지에 관하여 또는 가담하였다면 어느 정도의 내용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언더우드 부인은 이 사건에 관련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였다.¹¹⁾ 다만 사건발생 이후의 선교사들의 행동으로 미루어 볼 수 밖에 없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국왕의 둘째 아들 의화군을 자기집에 영접하였으며 윤웅렬 장군의 아들인 윤치호도 자기집에서 보호하였다. 그리고 사건의 장본인 윤웅렬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도록 하는데 적극 주선하였다. 선교사들이 국왕을 타처로 옮기려 했든지 궁내에서 보호하려 했든지 그 사실은 알 수 없으나 그 동기에 있어서 일본인들처럼 해하려한 것이 아니고 국왕의 심기를 평안히 모시려 했던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결국 일본인에 의하여 불안에 떨고있던 국왕은 이 사건발생 이후 얼마되지 않아 1896년 2월 11일 친로파의 권유에 따라 왕세자와 함께 아관파천 하시게 되었다. 여기에는 각국의 공사가 그들의 법력을 모아 국왕을 호위했기 때문에 일본군인도 더 이상 손을 뻗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건발생으로 우리나라를 단번에 삼키려던 일본의 야욕은 잠시나마 좌절되었다.

3) 미국 극동정책 변천과 교회의 반응

일본이 청일 전쟁의 승리로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점거하였고 노일전쟁의 승리로 러시아로부터 사할린 남반부를 점거하는 동시에 중국대륙



김광수 목사는 현재 서울 산정현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한국교회사 연구원장이다. 장로회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석사, Pacific Western University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교회사 정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한국기독교 수난사>,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대화> 등 14권의 저서가 있다.

으로 그 세력을 침투시켜갔을 때에는 한국은 이미 일본의 독점적인 세력권 내에 들어가 아무 힘도 없어진 때였다.

1905년 11월 17일 밤, 일본 군인은 왕궁을 포위하여 을사조약을 강요하고 주권을 빼앗아갔다. 다음해 12월에는 이토오가 통감으로 부임하여 조만간 한국을 병합할 전초공작을 진행하였다. 이 협약에 의하여 일제가 한국왕실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그것이 가면인 줄 아는 온 국민의 분노는 충천하였다. 황성신문의 주필 장지연은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실어 국민의 외분을 토로하였고 거래는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실운을 달래면서 아우성을 높였다. 민영환은 국민에게 고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였고 홍만식, 이상철 등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크게 터트렸다. 조약체결에 찬성한 이완용, 이근택, 박제순, 권중현 등은 을사오적이라 불리우면서 온 국민의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근택은 피격되고 권중현도 저격당하였는가 하면 이완용과 박제순의 집은 불살라졌다.

고종은 총칼의 위협으로 체결된 보호조약이 무효라고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호소하려 하였다. 이 사명을 갖고 감리교 선교사 헐버트가 고종의 친서를 휴대하고 미국으로 항해하였다. 이미 한국의 외무성은 일본인에게 쥐어졌는 고로 인편을 택할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눈치챈 일본은 그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보호조약의 완결을 서둘러 11월 17일 야간회의에서 고종이 그토록 버티는데도 불구하고 일본헌병을 시켜 반대자를 밖으로 끌어내고 완전히 불법적으로, 완력으로 체결을 강행하였다.

헐버트는 체결을 강행한 동일 날짜에 미국 워싱턴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는 뜻밖에 백악관 당국으로부터 면회까지 거절당하는 냉대를 받으면서 돌아서야 했다. 을사보호조약 체결을 몇달 앞선 1905년 7월에 미국 육군장관 테프트(Taft)는 일본 수상 가쓰라와 밀약한 것이 있었다.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상호 인정하기로 했던 것이다. 8월에는 영국과 일본 사이에 일본은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노일전쟁 후에 포츠머스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여하한 침해도 할 수 있도록 러시아로부터 굴복을 받고 있었다.

일본은 이와같이 한국의 주권을 강탈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을 이미 열강으로부터 받아 놓고 있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한국민의 의사와는 상반되는 국제적 흥정이었으나 고종은 이러한 내용을 알 까닭이 없었다. 그런고로 국왕은 그의 최선을 다하여 미국의 관여를 호소하면서 국가의 운명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

다. 알렌은 조약체결 약 1년 전부터 한미수호조약의 성실한 이행을 본국정부에 촉구하였고, 주한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일본의 침략과 정치적 야욕을 지탄하는 글발을 워싱턴으로 보냈다. 그러나 이와같은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었던고로 선교사들의 노력은 수포가 되고 말았다.

한국민의 서러운 충격은 1907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서 고종이 사절을 파견하여 일본의 한국주권 침해의 사실을 폭로케 했다가 하여 통감부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사건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흥적 이토오 통감은 계속적으로 한국을 완전히 장악하고자 러시아 측과의 담판을 위해 동북 중국 하얼빈으로 갔다가 안중근 의사에게 사살되었다. 1910년 대라우찌 육군대장이 통감의 직을 맡고 내한하였다. 그는 부임 3개월만인 8월 22일에 한일합방 안건을 이완용과의 밀의 끝에 조인하였다. 이 사실은 8월 29일에 공포되었고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므로 한국의 주권은 완전히 일본에게 박탈당하는 비운을 만났다.

이러한 정치변란기에 대하여 한국 주재 선교사 일동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1903년 한국에는 약 250명의 미국인이 주재하고 있었는데 그중의 약 반수는 선교사들이었다. 본국인 미국정부에서는 선교사들을 향하여 한국인 애국운동에 동조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현실을 눈으로 보고있는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한국인의 애국활동에 심분 동정이 가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미국정부의 정치적 방향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는 없었다. 한국인이 본래 미국을 신뢰하게 된 이유가 선교사들의 헌신적 선교정신과 공의롭고 우정있는 기독교인 생활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세변동으로 인한 태도의 전환은 한국민으로부터 불신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뒤따라 일어난 일제의 기독교를 향한 탄압과 박해가 그렇게 할 가능성의 기회를 완전히 앗아가고 말았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의 실제적인 생활태도를 보면 결코 한국민에 대하여 부정적이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기에 전혀 감정폭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최소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민으로부터 지난날과 같은 전폭적인 신뢰감을 얻지 못하게 된 것만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2. 항일 애국의 기독교적인 활동

1) 충군 애국사상의 만발

한국 기독교는 민족개화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민족독립의 정신적 또는 조직적 중추를 이루어 민족종교로 성장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대 성공을 거두었다. 민족의식을 국가의 비운과 국왕의 비극속에서 참아야했던 19세기 말의 우리나라 정치정세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민족의 장래와 국왕의 신변을 자기의 일인양 염려하는 생각으로 팍 차 있었다. 그런고로 초기 한국교회의 현저한 특징은 국왕을 향한 충성과 애국의 열정이란 말로 능히 표현되는 것이었다.

1895년도 미국 북장로회 선교 보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한국교회가 지닌 가장 흥미있는 양상의 하나는 애국심이다. 우리가 탄 배가 북쪽에 들렀다. 대나무 끝에 조그마한 한국국기가 휘날리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주일이 되면 그들의 집이나 교회위에 국기를 단다는 것은 선교사들의 아무런 지시도 없이 한국 기독교인들 사이에 저절로 일어난 실천이었다." 주일마다 교회와 신자들의 집집에서 국기를 달아 애국심을 나타내고 있음이 얼마나 호뭇한 모습인가. 1905년도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제4주년 기념사진을 보는데도 태극기가 앞줄에 펼쳐놓여 있음을 본다. 한국 기독교는 이러한 모양으로 그 처음부터 애국의 성격을 역력히 드러내면서 출발하였다.

고종께서 러시아 공판으로 파견하시게 되자 백성들은 이를 민망히 여기면서도 부득이한 사태임을 판단하여 국왕의 환어를 촉구하면서 성체의 평강을 회구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독립신문의 논조는 "대군주 폐하께서 일년동안 아라사 국기 밑에 아라사 병정의 호위를 받으시고 지내신 것은 사세에 부득이 하여 그렇게 된 일이라. 조선 인민 되야 대군주 폐하께서 남의 나라 병정의 호위를 받으시게 된 것은 마암에 민망하였거니와 민망한 중에도 성체에 위태로움이 없이 지내신 것은 다행으로 여기노라."고 하여 성체에 위태로움이 없이 지내심을 천만다행으로 여기는 충심을 토로하고 있다. 당시 국왕이 아관에 가 계시게 됨은 일본인의 손에서 일단 피하기 위함이었다. 말하자면 일본인에게 유괴되어 있느니 보다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는 것이 나으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타국의 간섭이 없는 완전한 독립국가를 갖춰야 하는데 있었다.

1897년 8월 17일 고종은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으로 고치고 연호를 광무로 하여 10월 12일에 즉위식을 거행하여 독립제국임을 세계만방에 선포하였다. 조선그리스도 회보는 그날 즉위식에 관한 보도를 <대조선 데일 경사>란 재호로 "우리가 참 대주재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동방을 권고하옵신 은덕을 감사히 녀이노라."고 하여 자주 독립국가가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 감사의 뜻과 애국의 정을 넘치게 표시하였다.

11월 11일에는 독립협회 주최로 한국주재 각

국 사절을 초청하여 독립경축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였다. 독립협회 회원들은 요전 목요일에 독립관에 내외국인을 청하여 경축회를 행하여 정성을 다해 대황제 폐하께 만만세를 부르고 세계에 대하여 자유독립한 황제국이라고 외치는 것을 보니 다 앞에 얼마큼 기쁘기도 하고 또 일면으로는 정부사세를 생각할진대 한심도 하더라." 7)

당시의 국가정세를 심히 근심하면서도 대한제국의 수립으로 기쁨의 감정이 뒤섞여 중심으로 부터 우리나라의 애국의 심정을 피력한 상황을 엿보게 한다. 이 경축회에서 윤치호는 "남에게 외지할 생각들을 말고 대한 인민이 대한을 보전하도록 일들을 해야한다."라고 역설하였고 이상재는 "대한도 자유한 나라이요 대한 인민도 독립 의사를 사랑하여 아모로록 인심을 돌려 참 나라 백성이 되자." 라는 말로 역설하였다. 이 경축회에 참석한 외국인들은 모두가 이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신성한 어린 국가를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모으고 키워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찬탄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1896년 9월 14일 고종 탄신일에 즈음하여 서울의 기독교인들은 국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였다. 그때 기념 축하대회를 열어 그 집회를 이용하여 전도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특별히 주목할만한 사실은 고종황제를 위하여 축가를 지어 언더우드 목사는 미리 프린트를 준비하였다가 모인 사람들이 부르게 하였다.

1. 높으신 상주님 자비론 상주님 긍휼히 보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지켜 주옵시고 오 주여 이 나라 보우하소서.
2. 우리의 대군주 폐하 만세 만만세로다. 복되신 오늘날 은혜를 내리사 만수무강케하여 주소서.
3. 상주님 권능으로 우리의 대군주 폐하 등극하셨네. 이 나라 이 땅은 영세불멸 하겠네. 대군주 폐하여 만만세로다.
4. 상주님 은혜로 오 주여 이 나라 독립하였네. 우리들 백성은 상하반상 구별없이 오 주여 상주님 기도하겠네.
5. 홀로 한분이신 만왕의 왕이여 찬미 받으소서. 상주님 경배하는 나라와 백성들, 국태민안 부귀영화 틀림없이 받겠네.

서울의 모든 교회에서 모인 3백명 신도들은 태극기와 십자기를 치켜들고 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자 이리오게'의 찬송가에 맞추어 열심히 불렀다. 참으로 태극기와 십자기는 한국교회의 상징이었다.

러시아 공판에 계시던 국왕이 2월 20일에 경운궁으로 환어하시게 되자 평양의 교인들은 뭇듯이 기뻐하였다. "평양 서문밖, 아영동, 미아리 교회에서는 대군주폐하께서와 황태자 전하께서

2월 20일에 경운궁으로 환어하신 회보를 보고 3월 1일에 회당에 모여 국기를 세우고 오색 등불을 달고 만만새를 외치며 애국가를 부르고 일제히 었디어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 대조선국이 동양에 유명한 나라가 되고 성수무강하기를 경축하면서 감사하는 뜻이 많았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않으리오." 4)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고종의 환어를 기뻐하고 있는 모습과 이 일을 한국사람 못지않게 좋아하며 보도하는 아펜젤라 선교사의 열띤 논조, 이 모두가 다 한국교회가 애국충군의 정신으로 충일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당시의 국가정세가 딱하면 딱할수록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차 있었다. 한국 기독교는 확실히 애국적 종교로서 출발하였고 또 그렇게 성장하였다.

2) 순국의 교회상 부각

한국 기독교인의 순국하는 운기와 결단은 을사보호조약 체결을 전후하여 구체화 하였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조약이 체결되는 바로 그날에 교회는 울음바다로 바뀌었다. 민영환이 자결하자 김하원, 이기범, 차병수 등의 기독교인들이 국권을 사수해야 한다는 경고문을 치켜들고 종로 네거리로 나갔다가 일본 경찰의 칼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헤이그 사절 파견사건으로 일본인이 고종의 왕위를 박탈하지 이상재는 군중 앞에서 역신과 일적들을 신랄하게 성토했다. 서울의 기독교청년회원들은 친일 단체인 일진회를 습격

하여 파괴하였으며 대한문 앞까지 진출하여 기 울어져가는 국운을 바라보며 땅에 뚫어앉아 통곡하였다.

한때 국왕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전언이 평양에 나돌자 교회들은 이를 크게 광고하였으며 학생들은 휴학하고 교인들은 점포를 닫고 휴업에 들어갔다. 심지어 교회의 청년들은 결사대를 조직하여 상경할 계획까지 짜고 있었다. 서울 상동 교회에서는 청년들에게 정복을 입고 군사훈련을 시행하였다. 기독교인 이재명은 이완용을 제거하려다가 실패하였다. 그러나 장인환은 미국에서 일본의 주구인 스티븐스(Durham W. Stevens)를 살해하는데 성공하였다.

당시 애국과 신앙사이의 조화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우국 기독교청년들은 무력의 사용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국가, 민족의 운명이 침략자에 의하여 멸망하려할 때, 원수를 무찌르고 동족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당연한 의무요 사명으로 느꼈던 것이다. 기독교청년회는 강연회를 열때마다 애국가를 불렀고 기도를 드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타게 부르짖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민족의 멸망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속에서 의연히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고 조국의 앞길을 비쳐주는 희망의 햇불을 치켜들고 앞으로 앞으로 전진을 계속하였다. 실로 한국교회는 망국의 시국속에서 민족을 발전하였으며 항일 순국의 생리를 간직하면서 또한 그것을 독립운동을 향해 크게 약진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주

1) L.H.Underwood, Underwood of Korea, New York, Fleming H.Revell, 1918, p.204

2) 이것은 일본정부가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술책에 불과하였고 사건 연류자들은 얼마후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모두 석방되었다.

山邊建太郎, 乙未事變について, 日本關係の展開,

3) J.S.Gale, Korean Sketches, Edinburgh, Cliphant Anderson & Ferrior, 1898, p.205

4) F.A.Mckenzie, The Tragedy of Korea, London Hodder & Stoughton, 1908, p.70

5) L.H.Underwood, Underwood of Korea, p. 235

6) L.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p. 153

7) 독립신문 2권 135호(광무 원년11월 13일)

8) 조선그리스도인의 회보, 건양 2년 3월 17일

*질의응답:(본 토의사항은 1988.8.28(금)-29(토), 양일간 서울 C.C.C 부담동 수련원에서 열렸던 제3회 하계 연합강좌시 이루어졌던 것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문 :

역사를 보는 관점에 관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사에 대한 관점 중 선교적 관점과 선교사들을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보고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려는 견해입니다. 또 우리에게 조금은 감정적으로 친근한 민족주의적인 특성들이 강조된 채 한국교회사를 해석하려는 관점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세번째, 즉 민족주의적인 면이 강조된 채 한국교회사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부터가 "애국적 민족교회를 지향한 한국 초기교회"였으니까요. 여기에서 교회라는 개념과 민족이라는 개념이 약간 부정확하고, 그 관계가 미묘하게 구분되지 않는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교분리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는 선교사들은 복음만 전한다, 독립은 우리가 해야 한다. 카톨릭과 다르게 신교는 정교분리를 한다고 했지만, "선교사들도 결국 미국 본국정부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한국의 상황에서 한국민족의 독특한 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므로써 실제로는 과연 그 내용이 정교분리인가 하는 의의가 들고, 민족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강조된 것이 이 강의의 전반적인 Tone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성경적인 원리의 면에서와, 실제적인 면에서 큰 난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헬레니즘의 문화와 로마의 앞제하에서 유대민족의 독특성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주의였고, 바리새주의였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면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종교화 되는 것을 단연코 거부하셨고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인과 이방인의 사이가 없어졌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교회안에서 민족주의적, 혹은 민족적 특성은 있을지 몰라도 민족주의적인 것은 완전히 빠져있다는 것을 신약에서 배울 수 있는데, 이런 성경적 원리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실제적인 점에서의 문제는 강의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국 정부에 순응하는 미

국 선교사와 한국의 해방을 위한 한국교인들과의 갈등들, 즉 한 교회에 속해있고 복음의 보편성이 나타났다면 그 복음안에서의 교제가 있었을터인데, 선교사들이 따르는 본국 정부가 있고 우리가 쟁취해야 할 한국의 독립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일본목사, 미국목사, 한국목사가 만났을 때 느끼는 갈등들은 "장차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된다"는 것이 교회안에서의 통일성으로, 성도의 생활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는데 목사님과 같은 관점으로 한국교회사를 해석했을 때 오히려 제한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관점을 다듬어서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배제하는 것이 교회사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추천할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

어려운 질문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대로 민족주의적이지요 애국자라 하는데, 사실 민족주의자도 애국자라 불릴만한 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의 내용이 그런 면으로 흐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장에 우리 현실에 필요한 국가문제요, 민족들의 문제입니다. 민족도 하나님께서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도 가정도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민족을,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 민족, 나라, 가정, 단위단위마다 모두 지킴으로서 세계가 사회동포주의로 하나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래 완전한 모습은 사회동포주의요, 우리는 민족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적인 민족 관념이 아니고, 민족을 사랑하고 위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협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뜻은 전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머리속에 크게 두고서 현재에 속해 있는 내 민족, 내 나라를 위하는 것이 그길로 통하는 바라고 생각할 때 공부한 내용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목사)